

## IV.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증가 배경 및 시사점

1. 검토 배경
2.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현황
3. 취약기업 증가 배경
4. 평가 및 시사점

### 1. 검토 배경

2020년중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부진 및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sup>1)</sup>의 이자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을 하회하는 기업(이하 '취약기업')의 비중은 2020년말 39.7%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2008년말 33.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증가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기업 부실이 늘어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의 현황 및 증가 배경에 대하여 전이경로, 재무비율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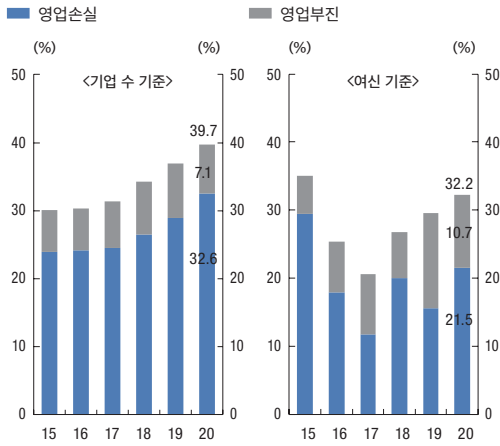
## 2.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현황

### 가. 국내 취약기업 현황

2020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취약기업 비중은 분석대상기업(2,520개)의 39.7%(1,001개)로, 2019년에 비해 2.7%포인트 상승하였다. 취약기업 중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이자보상배율이 0 미만인 기업(이하 '영업손실 취약기업')의 비중은 전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32.6%이며, 영업이익 흑자 규모가 이자비용보다 작아 동 배율이 0~1 미만인 기업(이하 '영업부진 취약기업')의 비중은 전년(8.1%)보다 1.0%포인트 하락한 7.1%로 나타났다. 한편 취약기업 여신 비중은 분석대상기업이 보유한 금융기관 여신(434.1조원)의 32.2%(139.9조원)로, 동 비중은 2017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영업손실 취약기업의 경우 기업 수 및 평균 여신 규모가 모두 늘어나면서 여신 비중(21.5%)이 전년보다 6.0%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영업부진 취약기업의 여신 비중(10.7%)은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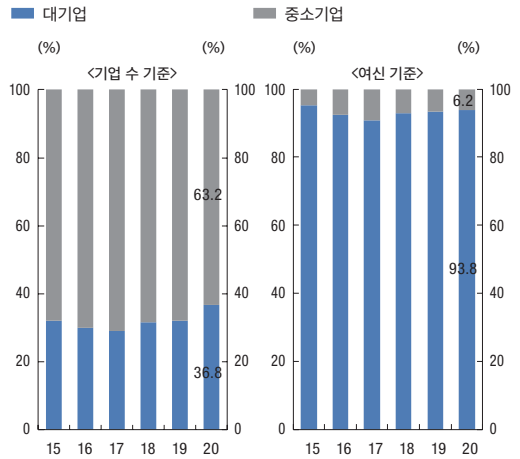
1) 2020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총 2,520개 기업(대기업 1,276개, 중소기업 1,244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IV-1.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sup>1)</sup> 추이



주: 1) 연도별 분석대상기업의 기업 수 및 보유 금융기관 여신 대비  
 자료: KIS-Value, 한국신용정보원

그림 IV-2. 취약기업의 기업규모별 구성 비중<sup>1)</su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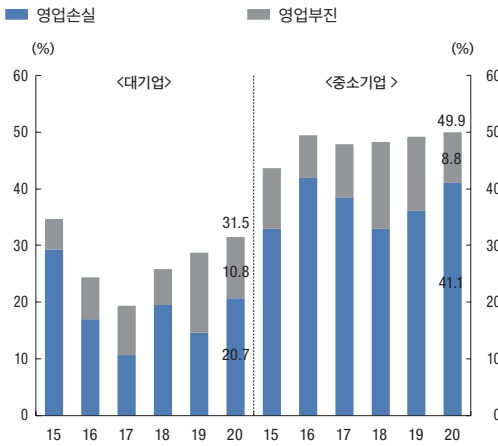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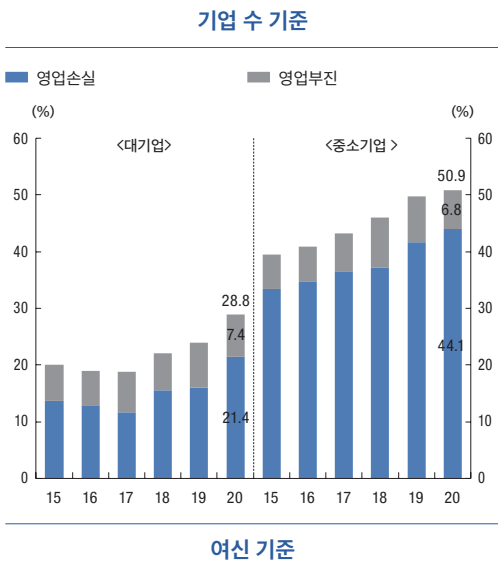
주: 1) 연도별 취약기업의 기업 수 및 보유 금융기관 여신 대비  
 자료: KIS-Value, 한국신용정보원

2020년 취약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기업 수 기준으로 전체 취약기업의 63.2%(633개)를, 여신 기준으로는 전체 취약기업 여신의 6.2%(8.6조원)를 차지하였다(그림 IV-2). 동 비중은 2020년 분석대상기업 중 중소기업의 구성비(기업 수 49.4%, 여신 4.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2020년중 대기업 취약기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예년 수준<sup>2)</sup>을 하회하였다.

한편 각 기업규모별 대상기업 중 취약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분석대상 중소기업의 50.9%가 취약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28.8%)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자지급능력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영업부진 취약기업 비중은 규모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대기업 7.4%, 중소기업 6.8%) 하였으나, 영업손실 취약기업 비중은 중소기업(44.1%)이 대기업(21.4%)을 큰 폭 상회하였다. 여신 기준으로는 2020년 분석대상 중소기업이 보유한 여신(17.3조원)의 49.9%(8.6조원)를, 대기업 여신(416.8조원)의 31.5%(131.3조원)를 분석대상 취약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3).

2) 2015~19년 취약기업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면, 중소기업은 기업 수 기준으로 69.0%(대기업 31.0%)를, 여신 기준으로 6.7%(대기업 93.3%)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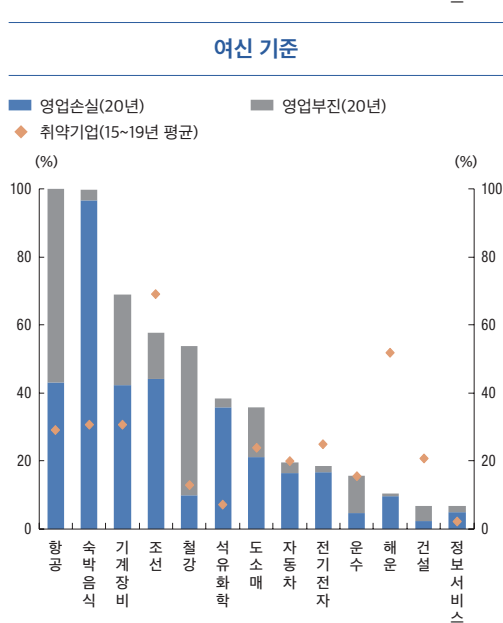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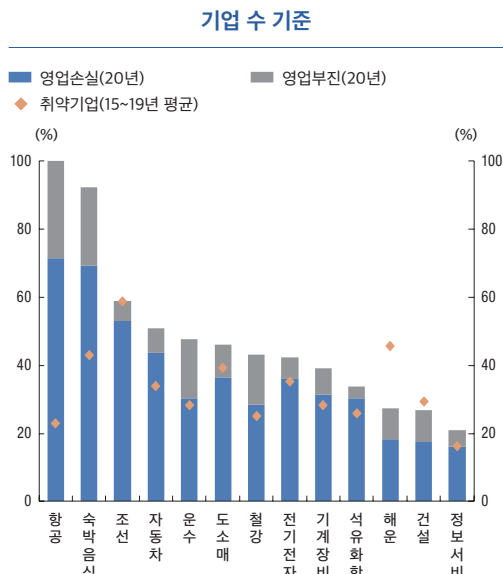
그림 IV-3. 기업규모별 취약기업 비중<sup>1)</sup> 추이



주: 1) 연도별 분석대상 대·중소기업의 기업 수 및 보유 금융기관 여신 대비  
 자료: KIS-Value, 한국신용정보원

업종별로는 2020년중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항공, 숙박음식 등의 업종에서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취약기업 및 여신 비중이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 외에도 기업 수 기준으로는 조선, 자동차 등에서, 여신 기준으로는 기계장비, 조선, 철강 등에서 취약기업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4).

그림 IV-4. 업종별 취약기업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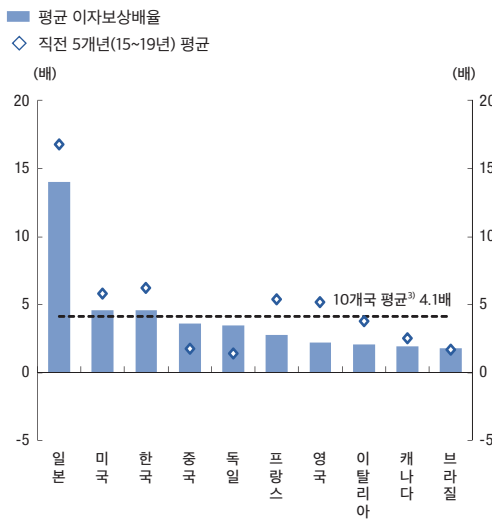


주: 1) 업종별 분석대상기업의 기업 수 및 보유 금융기관 여신 대비  
 자료: KIS-Value, 한국신용정보원

## 나. 주요국과의 비교<sup>3)</sup>

국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현황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과 비교한 결과, 2020년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4.6배로 주요국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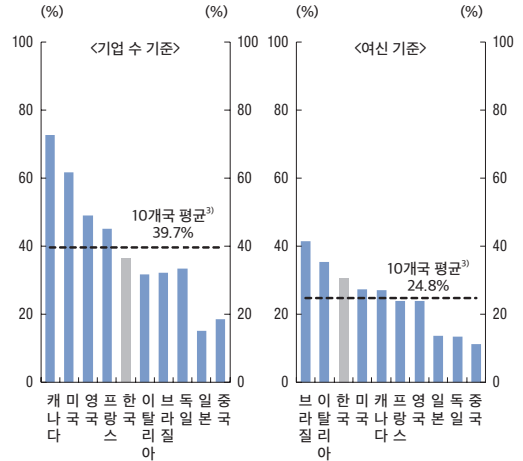
그림 IV-5. 주요국 평균 이자보상배율<sup>1)2)</sup>



주: 1) 2020년 기준  
 2) EBIT/이자비용  
 3) 각 국별 2020년 이자보상배율의 단순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Refinitiv

한편 2020년중 국내 취약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 36.5%로 주요국 평균(39.7%)을 하회하나 여신 기준으로는 30.7%로 주요국 평균(24.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취약기업의 기업당 평균 여신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V-6).

그림 IV-6. 주요국 취약기업<sup>1)</sup> 비중<sup>2)</sup>



주: 1) 이자보상배율(EBIT/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  
 2) 2020년 기준  
 3) 각 국별 취약기업 및 여신 비중의 단순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Refinitiv

## 3. 취약기업 증가 배경

### 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기업의 증가 원인을 이자보상배율 변동요인인 ① 수익성(총자산 영업이익률), ② 차입금의존도 및 ③ 평균 차입비용(차입금평균이자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sup>4)</sup> 분석 결과 취약기업의 증가는 차입금의존도나 차입비용의 변동보다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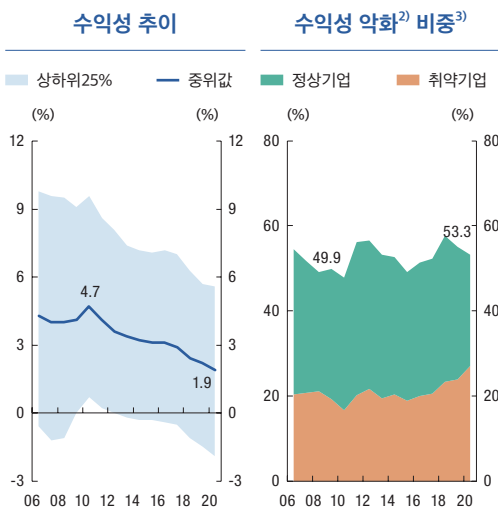
3) 국제 비교를 위해 각국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 Taxes)과 이자비용(Interest expense on debt) 항목을 활용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배율 및 취약기업 비중이 앞의 통계와 상이하다.

4) 이자보상배율은 다음 산식과 같이 수익성, 차입금의존도, 평균 차입비용으로 변동요인을 분해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이자보상배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총이자비용}} =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산}} \times \frac{1}{\text{총차입금/총자산}} \times \frac{1}{\text{총이자비용/총차입금}} \\
 &= \text{수익성(총자산영업이익률)} \times \frac{1}{\text{차입금의존도}} \times \frac{1}{\text{평균 차입비용(차입금평균이자율)}}
 \end{aligned}$$

이자보상배율 산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익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총자산영업이익률 중위값, 08년 4.7% → 20년 1.9%)된 가운데, 총자산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기업(이하 ‘수익성 악화 기업’)의 비중이 점차 상승하면서 최근 동 비중(20년 53.3%)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09년 49.9%)을 상회하였다. 2020년의 경우 수익성 악화 기업 비중이 2019년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들 기업 중 취약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인 기업(이하 ‘정상기업’)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그림 IV-7).

그림 IV-7. 기업 수익성<sup>1)</su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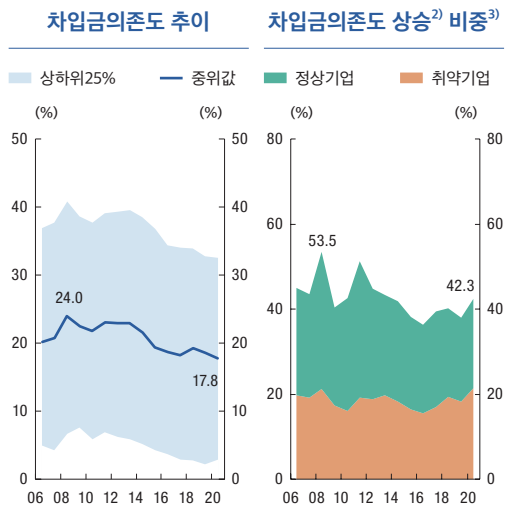


주: 1) 총자산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총자산  
 2) 전년대비 총자산영업이익률 하락  
 3) 연도별 분석대상기업 중 해당 기업 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한편 총자산대비 차입금 규모로 평가하는 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중위값, 08년 24.0% → 20년 17.8%)를 지속하였다. 2020년중 차입금의존도가 전년보다 높아진 기업의 비중(20년

42.3%)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당시 수준(08년 53.5%)을 크게 하회하였다(그림 IV-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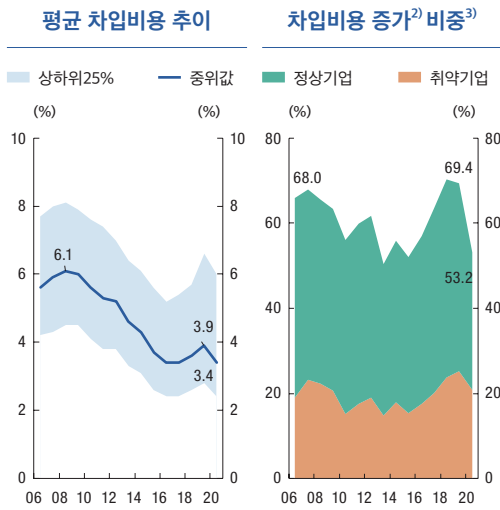
그림 IV-8. 기업 차입금의존도<sup>1)</sup> 추이



주: 1)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총자산  
 2) 전년대비 차입금의존도 상승  
 3) 연도별 분석대상기업 중 해당 기업 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이자보상배율 산식의 분모와 관련된 기업의 차입금평균이자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중위값, 08년 6.1% → 20년 3.4%)하였다. 특히 2020년중 기준금리 인하,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에 힘입어 차입금평균이자율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0.5포인트)하였으며, 평균 차입비용이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의 비중이 크게 하락(19년 69.4% → 20년 53.2%)하였다(그림 IV-9).

그림 IV-9. 기업 평균 차입비용<sup>1)</su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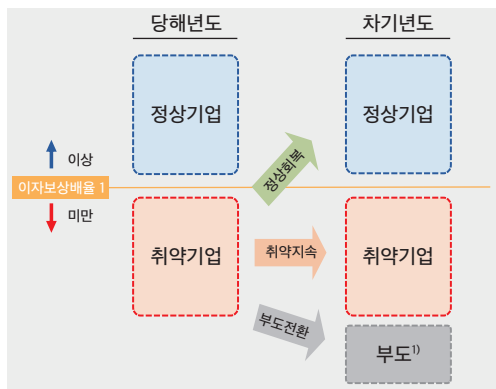


주: 1) 차입금평균이자율 = 총이자비용/총차입금  
 2) 전년대비 차입금평균이자율 상승  
 3) 연도별 분석대상기업 중 해당 기업 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나. 취약기업 지속기간 장기화

취약기업은 차기년도 이차보상배출 수준 및 부도 여부를 기준으로, ① 정상기업으로 회복되거나(이하 ‘정상회복’), ② 취약기업으로 지속되거나(이하 ‘취약지속’), ③ 폐업, 자본잠식 등 부도 상태로 전환되는(이하 ‘부도전환’) 등 3가지 전이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IV-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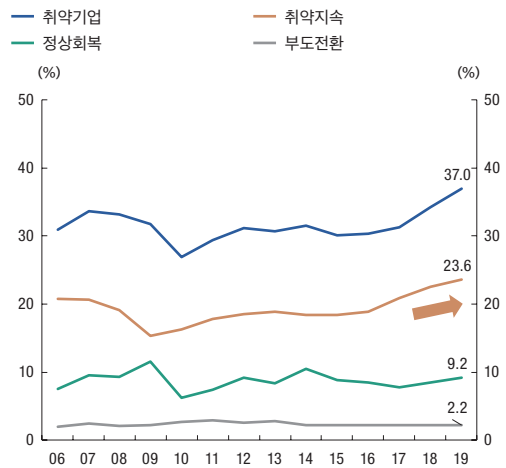
그림 IV-10. 취약기업 전이경로



주: 1) 폐업, 자본잠식 등이 발생한 기업을 부도 상태로 분류

2006~19년 취약기업을 전이경로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기업에서 정상기업으로 회복되거나 부도로 전환된 기업보다는 취약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속 기업의 비중은 2009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중 23.6%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07년 20.6%)을 상회하였다. 반면 정상회복 기업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부도전환 기업의 비중은 대체로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1).

그림 IV-11. 전이경로별 취약기업 비중<sup>1)</sup> 추이<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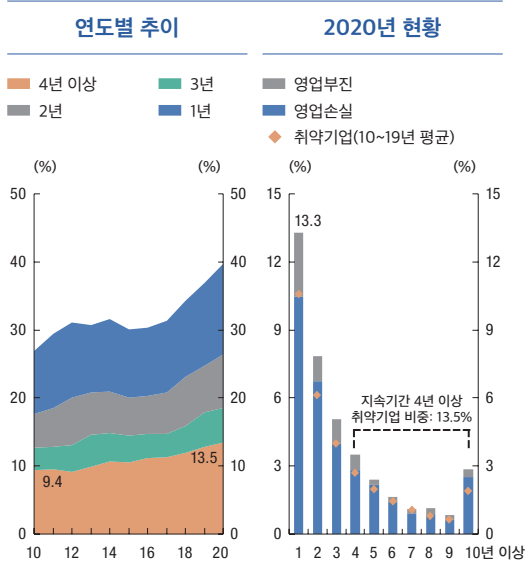


주: 1) 연도별 분석대상기업 중 해당 기업 수 비중  
 2) 표본 이탈 등으로 인해 각 경로별 비중의 합산이 전체 취약기업 비중과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이처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이차지급능력이 저하된 취약기업들은 이후에도 취약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기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20년 취약기업을 취약상태 지속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구간(1년, 2년, 3년, 4년 이상)에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이상 취약상태가 지속된 기업(이하 ‘장기존속 취약기업’)의 비중은 2010년 9.4%에서 2020년 13.5%로 상승하였다. 한편 2019년에 정상기업이었으나 2020년 중 취약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지속기간 1년)의 비중은 13.3%로, 과거 2010~19년 평균 수준(10.6%)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IV-12).

그림 IV-12. 취약상태 지속기간별 취약기업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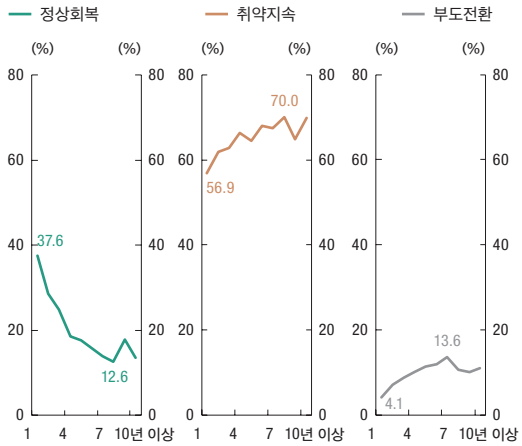


주: 1) 연도별 분석대상기업 중 해당 기업 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2010~19년 취약기업의 지속기간별 전이비율을 살펴본 결과, 취약상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해에 정상기업으로 회복되는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취약기업으로 지속되거나 부도로 전환되는 비율은 대체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처음 취약기업이 된 기업(지속기간 1년)의 37.6%가 다음 해에 정상기업으로 회복된 반면, 8년간 취약상태가 지속된 기업의 경우 12.6%만이 다음 해에 이자보상배율 1 이상으로 회복하였다. 반면 취약기업이 다음 해에 부도로 전환되는 비율은 취약기업 1년차에 4.1%에 불

과하였으나 지속기간 7년차에는 13.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3).

그림 IV-13. 취약상태 지속기간별 전이비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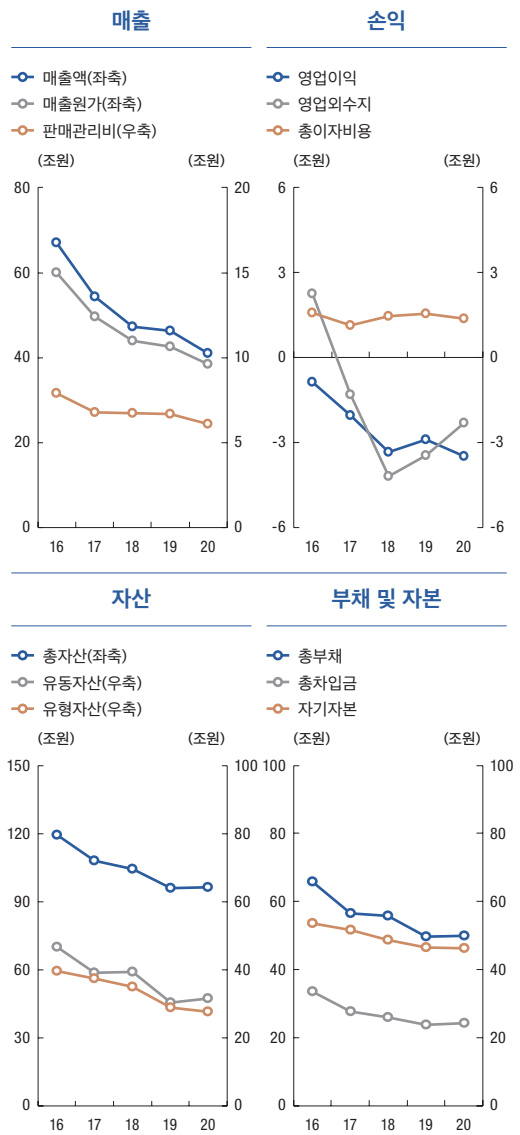


주: 1) 2010~19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2020년 기준으로 취약상태 지속기간이 4년 이상인 장기존속 취약기업은 전체 취약기업(1,001개)의 34.0%인 340개로 추정되었다. 이들 장기존속 취약기업이 장기 취약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최근 5년간(16~20년) 주요 재무항목 및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2020년 장기존속 취약기업은 2017년중 매출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18.9%)하자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16년 -0.9조원 → 17년 -2.0조원)되고<sup>5)</sup> 영업외수지도 적자로 전환(+2.3조원 → -1.3조원)되었다. 그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이 크게 감소(-3.5%)하고, 보유 현금 등 유동자산(-16.2%)과 부동산 등 유형자산(-5.7%)이 모두 줄어들면서 총자산(-9.3%) 규모도 축소되었다. 한편 총차입금 등 부채가 줄어들었으나<sup>6)</sup>, 총이자비용은 거의 변동하지 않아 평균 차입비용이 증가하고 이자보상배율은 더욱 하락하였다. 장기존속 취약기업은 이후 “매출 감소 → 영업손실 확대 → 자기자본 축소 → 자산 축소 → 부채 축소”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업활동이 점차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4).

그림 IV-14. 장기존속 취약기업<sup>1)</sup>의 주요 재무항목<sup>2)</sup> 추이<sup>3)</sup>



주: 1) 2020년 기준 취약상태 지속기간 4년 이상인 취약기업  
 2) 2020년 장기존속 취약기업(340개) 합산 기준  
 3) 2020년 기준 장기존속 취약기업의 최근 5년(16~20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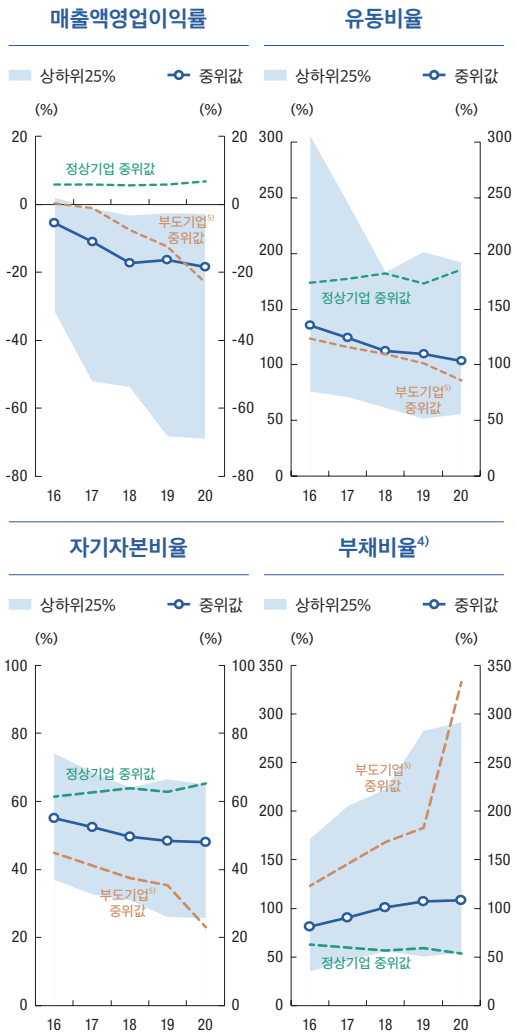
5) 2020년 기준 장기존속 취약기업(340개) 중 2016년 정상기업에서 2017년부터 취약기업으로 편입된 기업들(58개)의 경우, 2016년에 영업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중 매출액이 큰 폭 감소(-27.1%)하면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축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로 전환되었다.

6) 다만, 2016년 정상기업에서 2017년부터 취약상태가 된 장기존속 취약기업들의 경우, 2017년중 총차입금을 크게 증가(+29.8%)시켜 영업손실에 대응하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이들 역시 총차입금이 감소하면서 자산과 자기자본이 동시에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년중 장기존속 취약기업은 매출액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점차 확대(매출액영업이익률 중위값, 16년 -5.6% → 20년 -18.5%)되면서 주요 재무비율<sup>7)</sup>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1년 이내 유동부채 상환에 필요한 단기 유동성을 평가하는 유동비율(중위값, 16년 135.6% → 20년 103.2%)이 크게 하락하여, 2020년중 장기존속 취약기업의 48.5%가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은 상태가 되었다. 또한 금융비용의 부담 없이 기업이 운용가능한 자본의 비중을 통해 장기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자기자본비율(중위값, 55.1% → 48.0%)도 점차 하락하였다. 한편 장기존속 취약기업은 부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더 빠르게 축소되면서 부채비율(중위값, 81.5% → 108.3%)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동 비율이 200%를 초과(자본잠식 포함)한 기업도 크게 증가(16년 71개 → 20년 108개)하였다(그림 IV-15).

그림 IV-15. 장기존속 취약기업<sup>1)</sup>의 주요 재무비율<sup>2)</sup> 추이<sup>3)</sup>



주: 1) 2020년 기준 취약상태 지속기간 4년 이상인 취약기업  
 2)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3) 2020년 기준 장기존속 취약기업의 최근 5년(16~20년) 추이  
 4) 연도별 자본잠식 기업을 분포에 포함하여 분위값 계산  
 5) 2016~20년중 부도 발생 기업의 부도 직전 5년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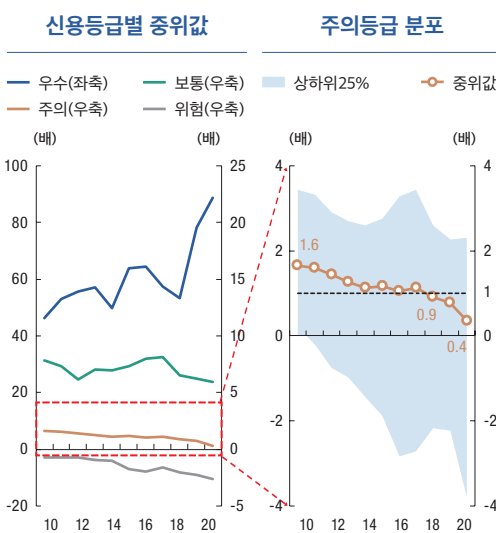
7) IMF(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1년 4월)에서도 기업의 회생 가능성(viability)을 평가하기 위해 유동성(liquidity) 측면에서 유동비율(current ratio)과 지급능력(solvency) 측면에서 자기자본비율(equity-to-assets ratio)을 주요 재무지표로 활용하였다.

8) 한편 동 기간중 정상기업들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중위값, 16년 5.9% → 20년 6.8%)하였으며, 유동비율(중위값, 16년 173.8% → 20년 185.4%) 및 자기자본비율(중위값, 16년 61.4% → 20년 65.2%)이 크게 개선되고 부채비율(중위값, 16년 63.0% → 20년 53.4%)은 하락하는 등 장기존속 취약기업들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신용평가의 이자보상배율 반영도 하락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는 다양한 재무지표 및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들을 평가하는데, 최근 기업 신용평가에서 이자보상배율의 반영도가 다소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별 이자보상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수등급을 제외한 모든 신용등급<sup>9)</sup>에서 이자보상배율 중위값이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의 경계에 해당하는 주의등급(KIS 신용평점 6~7점) 기업들의 경우, 2010년 이후 이자보상배율 중위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부터는 주의등급 기업의 50% 이상이 이자보상배율 1을 하회하였다(그림 IV-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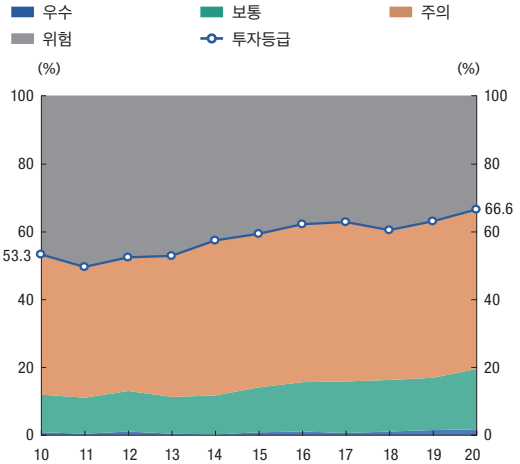
그림 IV-16. 신용등급<sup>1)</sup>별 이자보상배율 추이



주: 1) KIS 신용평점을 우수(1~3), 보통(4~5), 주의(6~7), 위험(8~10)으로 재분류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아울러 취약기업들의 신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기업 중 투자등급<sup>10)</sup>으로 분류된 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0년 취약기업의 66.6%가 투자등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7).

그림 IV-17. 취약기업의 신용등급<sup>1)</sup> 분포<sup>2)</sup>



주: 1) KIS 신용평점을 우수(1~3), 보통(4~5), 주의(6~7), 위험(8~10)으로 재분류하고, 우수, 보통, 주의 등급 기업을 투자 등급으로 구분  
 2) 연도별 취약기업의 신용등급별 기업 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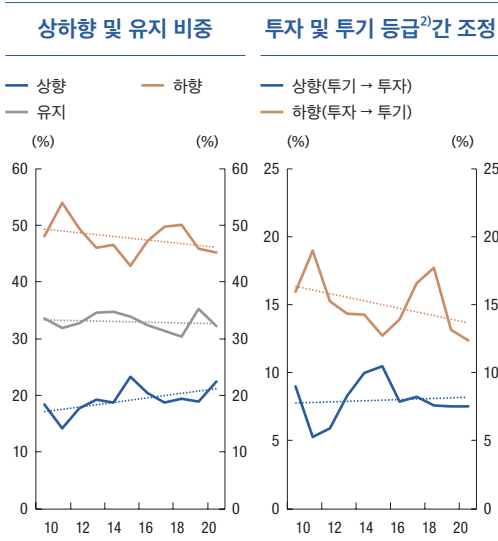
2010년 이후 취약기업의 신용등급 상하향 조정 추이를 살펴보면, 취약기업 중에서 전년보다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기업의 비중은 대체로 상승한 반면 하향 조정된 기업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특히 취약기업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비중이 2018년 이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취약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다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IV-18).

9) 본고에서는 KIS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대상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크게 4단계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KIS 신용평점을 S&P,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KIS 신용평점	1	2	3	4	5	6	7	8	9	10
S&P	AAA	AA	A	BBB	B~CCC	C	D			
무디스	Aaa	Aa	A	Baa	Ba~Caa	Ca	C			
본고	우수			보통		주의		위험		

10) 주요 신용평가사에서는 통상 BBB 이상을 투자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본고에서도 KIS 신용평점이 1~7점인 기업을 투자등급으로, 8~10점인 기업을 투기등급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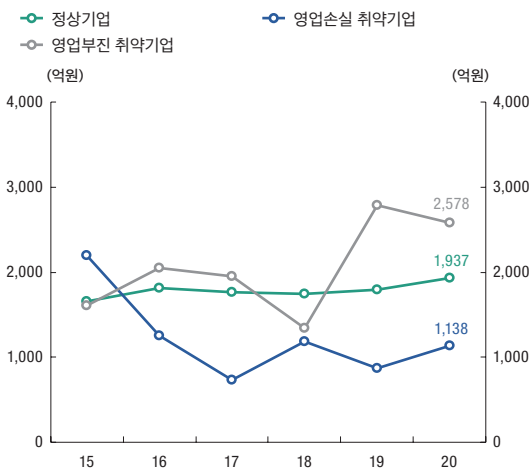
그림 IV-18. 취약기업의 신용등급 조정<sup>1)</sup> 비중 추이



주: 1) KIS 신용평점이 전년에 비해 상승 혹은 하락  
 2) KIS 신용평점 1~7점은 투자등급, 8~10점은 투기등급으로 분류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완화적 차입여건 및 신용등급 등에 힘입어 최근 취약기업의 평균 여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통해 부도위험을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IV-19).

그림 IV-19. 정상 및 취약 기업의 기업당 평균 여신<sup>1)</sup> 추이



주: 1) 연도별 해당 기업의 총여신을 기업 수로 나눈 단순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체 추산, KIS-Value, 한국신용정보원

## 4. 평가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금융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리 인하, 원리금상환유예 등에 힘입어 기업의 차입여건은 완화되었으나 총자산 규모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저하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취약기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취약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되지 않아 취약기업인 상태로 장기 존속하는 경향이 있다. 취약상태 지속기간이 4년 이상인 장기존속 취약기업의 경우,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단기 유동성 및 장기 지급능력이 모두 악화되면서 자산 및 자기자본이 감소(대차대조표 축소)하는 등 기업활동이 점차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이자지급능력 강화 및 취약기업 감소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보다는 국내외 수요회복,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이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일시적 부실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만성적 부실기업이 구조조정 없이 장기 존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이례적인 금융지원 조치들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회복 양상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및 회생 가능성(viability)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